

www.sungmuncare.or.kr



10th

나의 미래를 보고  
어르신들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

# 연화향

2020. Autumn. Volume 18.



# CONTENTS



- 03\_ 개원10주년 기념사 원장님 인사말
- 04\_ 성문소식通 상반기 주요 동정
- 06\_ [2020년 복지사업팀 중점사업프로그램] 수미쌍관
- 08\_ [열정과 희망의 물결이 일다] 수상(授賞)한 성문
- 12\_ [믿음과 신뢰로 만나다] '이영록 어르신 보호자' 한걸음 더 가까이
- 14\_ [미래를 보다] 휴대폰으로 매주 만나는 노인인권
- 16\_ [10주년 새단장] 신축시설 소개
- 18\_ 2020. 상반기 결산서
- 19\_ 2020. 하반기 주요일정
- 20\_ 성문가이드

## 성문요양원 개원 10주년 기념사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변화는 물론이고, 힘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온 국민이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코로나 위기에 맞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도 되기 전 올해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로 수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수해 피해복구로 하루빨리 안정된 삶과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 개원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원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성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성문요양원은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자비의 복지를 추구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끝으로, 연등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두루하여 바라고 원하는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두 손 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소지 합장-

10 TH AUTUMN FESTIVAL

# 상반기 주요소식



설날행사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날 행사인 '행복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직원 모두 고운한복으로 차려입고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 윷놀이 행사와 훈훈한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가장 큰 보름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2층과 3층에 걸쳐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고 웃는 날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식목행사

공공 얼었던 추위도 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왔어요.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식목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을 심으시며, 우리 어르신 마음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어버이날행사

5월 8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불자 어르신을 모시고 성문사와 행구동 일대로 차량 나들이 다녀왔어요~ 오랜만인 외출에 무척 즐거워하시며, 시간가는줄도 모르셨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한 달 연기된 5월 30일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성문요양원 후원홍보 활동으로 전통문화체험, 합장주만들기, 연등컵만들기 체험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미쌍관

올해 복지사업팀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수미쌍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팀, 간호팀, 요양팀의 각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욕구 해결을 돕고, 정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행복하세요^^



요리활동

2, 3층에 걸쳐 감작이벤트로 어르신들께 감자전을 만들어 드렸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 바삭하고 쫄깃한 감자전은 우리 어르신 입맛에도 딱! 마지막 한입까지 맛있게 드셔서서 흐뭇하지요^^



# #치매전담실 #반야실 #이모저모



회상활동 '호박 고지전'

영양이 농축된 건강식품인 호박을 얇게 채 썰어서 동글 납작하게 전을 만들었어요~ 호박의 단맛에 고소함까지 맛도 짠~영양도 짠~이에요!



청상추 심기

상추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들과 1인 1화분 하면서 청상추 심기를 하였어요. 파릇파릇 상추를 보며, 어르신들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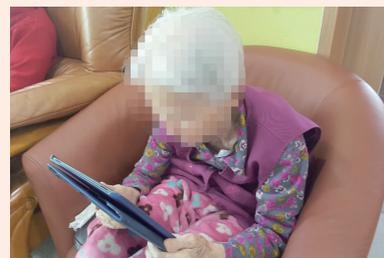
벚꽃 이야기

봄바람 휘날리며~흠날리는 벚꽃잎이~♪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외부 산책

요양원 앞마당에 있는 미니텃밭 구경하시고, 맛있는 간식도 드셨어요! 어르신들과 햇빛산책 하며 비타민D 생성 완료! 역시, 기분전환에는 산책이 최고죠^^



가족참여 '영상통화'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들리는 자녀분들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에 어르신들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리운 가족입니다♥



힘뇌체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치매예방체조로 매일 오전 힘뇌체조를 진행하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과 구령에 맞춰 으샤으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원예활동

꽃 수명이 길어서 한참동안 어르신들의 방분위기를 화사하게 살려 줄 '제라늄'화분을 심었어요. 꽃말은 '그대로 인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상추심기

수확의 기쁨이 있는 상추심기를 진행 하였어요. 역시, 역시! 우리 어르신들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십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속속속~ 순식간에 상추심기 끝!



모의시장

매월 진행되는 모의시장이지만,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지요^^ 진짜 돈은 아니지만, 돈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 2020. 중점사업 '수미쌍관'

“몰랐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살면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수미쌍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어르신 말씀이다. 말수가 거의 없던 어르신께서 복지사의 질문에 속을 내비치시던 그 날은 종결이 몇 회기 남지 않았을 때였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오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어찌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른다. 또, ‘가족들에게는 덤덤한 척했지만, 요양원 들어오던 날 이 내 평생 가장 슬펐던 날’이라는 B어르신의 말씀도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했다.

2020년 중점사업 중 하나인 ‘수미쌍관’은 ‘관심에서 출발해, 좋은 관계로 도착한다’는 부제를 갖고 있다. 처음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논의를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 ‘관계 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몹시 추상적일뿐더러, 변화가 있기는 할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측정할지 참 난해했기 때문이다. 반신반의 하며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반년 동안 함께 한 어르신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결과적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로 우울감이나 문제행동(BPSD)이 있는 분, 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못 해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거부하시는 분 등이다. 일단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3명이 각자의 영역에서 어르신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파악해,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계획을 세운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르신의 취미·선호와 관련된 원예·요리·산책·소근육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1:1로 진행한다. 사실 그런 활동들은 프로그램의 주목적이 아니다. 그저 어르신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고, ‘제가 어르신에게 공감하고 있어요’라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에 소소한 것을 많이 챙긴다. 수분섭취가 부족한 어르신에게 물 한 잔을 더 권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등 어르신의 일상에 소소하게 배어든다.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역할은 어르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자신의 신체·건강상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혈압도 좋고, 혈당도 좋아요.”라는 한 마디에 안심하고, “걷기운동 할 때 넘어지면 골절될 수 있으니, 꼭 안전바 잡고 걸으세요”라는 한 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반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은 C어르신이다. 치매로 인해 섬망증상이 매우 심하셨던 C어르신은 특히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는 ‘도둑’ 섬망이 잦으셨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표정 또한 항상 경계하시는 듯 보였다. 또 다른 문제는 수분섭취를 하지 않아 배뇨간격이 매우 길다는 것이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히스토리시트를 보니 건강하실 적에 ‘화초 기르기’가 취미셨단다. 사회복지사와 원예활동을 한 첫 날, 어르신께서 옮겨심기가 완료된 화초를 보시고는 “예전에도 집에 많이 심었었는데 화초가 잘 살면 기분이 좋고, 나도 살아나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2회기부터 일부러 시작한 것이 요양원 여기저기 관리가 안 된 화초를 살리는 활동이었다. 옷자란 줄기를 잘라 수경재배를 하고, 부러진 다육이를 흙에 꽂아 다시 살리기도 했다. 그렇게 어르신의 사물함 위에 놓인 화분들이 어느덧 일곱 개.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화분들에 쏟는 어르신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복지사가 갈 때마다 “물 줄 때 안 됐나?”라는 질문과 함께 당신 양치컵의 물을 쓰자고 하신다. 그러면 양치컵의 물을 화초에 주고, 컵에는 다시 물을 채워드린다. ‘양치컵의 물’이 어르신들이 화초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한편 소변량이 적었던 것은 영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수분섭취를 권하고 마사지를 해드렸다. 어느 날은 어르신께서 영양보호사가 들어가니 “나 조금 전에 소변 봤어”라며 먼저 말씀을 하셨단다. 영양보호사가 ‘어머~잘 하셨어요’라며 웃으니, “아니, 오줌은 내가 싸는데, 남들이 좋아하네”라며 농담까지 건넜단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어르신들의 섬망증상이 프로그램 한 달 개입 후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낯설어 마음 둘 곳 없던 공간에 정 줄 만한 대상이 생겨서일까? 누군가 당신께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서서일까? 아니면 정말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화초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 어르신도 살아나는 듯 해서일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말씀이 거의 없던 어르신들이 미소를 짓고, 소리 내 웃기까지 하는 변화를 지근거리에서 보아온 우리들은 느낄 수 있었다. ‘아! 이것이 ‘좋은 관계’구나!’

그 외에도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던 어르신들이 자주 나와 프로그램까지 참여하시고, 묻는 말에 겨우 단답형으로 답하시던 어르신들이 웃으며 먼저 긴 문장으로 말씀을 걸어주시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다. ‘그게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 나는 이런 것이 사람의 관심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삼시세끼 밥과 약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공감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인해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수미쌍관’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

- 김미주 사회복지사-



## 수상(授賞)한 성문



### <강원도 치매사업발전대회>

#### 2014. 우수상 수상

강원도가 주관하는 강원도 보건·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는 강원도와 시·군 보건기관 및 센터지원단 등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치매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가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 <성문8090 청춘라디오>

#### 2015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우수사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르신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 바로 '성문8090청춘라디오'였다. 어르신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 게스트,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의 자체적 라디오 방송으로,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 이었다.



### <응답하라 1945!>

#### 2016 장기요양기관 치매프로그램 우수사례

2016년도 1년간 진행한 ‘응답하라 1945!’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진행/관리하며,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탐방 나들이, 일상생활, 전통놀이, 신체활동, 요리교실, 미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억회상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치매전담실 개소>

2017년 원주 최초로 개소된 치매전담실은 치매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과 비슷한 소규모(12명 정원) 환경으로 운영되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수상(授賞)한 성문



### <치매전담실>

### 2018.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

건강보험공단 우수사례공모에서 치매관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멘토-멘토링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지통합프로그램으로 매일 신체활동, 인지자극활동,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치매어르신만을 위한 전문케어에 힘쓰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A등급)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제9회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1년, 2015년, 2018년 3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의 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청각의 心금화>

#### 2019.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중 MMSE-K(치매간이검사) 불가한 중증와상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각 위주의 다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청각의 心금화’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한 분당 20분씩 1:1로 진행한다. 살아온 시대 및 개인의 생애 히스토리가 반영된 내용들을 육성을 포함한 청각 위주로, 무엇보다 어르신에 대해 잘 알고 개별맞춤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 <영양사 우수사례 대상>

2019년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주관한 ‘제1회 영양사 직무교육 및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성문요양원의 급식을 소개하고 영양공급 호전사례를 발표하여 전국노인복지시설 중 1등을 수상하였다.



## 한걸음 더 가까이

이번 소식지에 실은 내용은, 성문요양원에 2013년에 입소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계신 이영록 어르신  
의 보호자 분과 이야기 나누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 '삶이 변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관음동(2층)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이영록 어르신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올해로 요양원 입소하신지 어느덧 햇수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점차 연세가 들면서 기력이 약화되고, 다리도 많이 불편하여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리가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요양원 입소하기 한참 전부터 자녀들을 불러 모아 “내가 거동이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들어 갈 거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지요.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서 한 날 한 시라도 더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미루었는데, 안사람과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 갈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조금씩 요양원 입소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요양원생활을 성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끝까지 내 손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송구스러움과 걱정에 한동안 마음이 심란하였던 것이 생각 납니다. 대부분 누구나 그러할테지만, 어머니 역시도 집에서만 생활해오다가 하루아침에 시설이라는 곳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단체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적응은 잘 하실 수 있는지, 다른 어르신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걱정뿐이었지요.

### '하루하루 조금씩 스며들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아프고 늙어가지요. 부모와 자식도 둘 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만큼은 안 올 것 같은 남의 얘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은 자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생활하고 계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우리 5남매를 키우기 위해 고생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위해 한평생을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살아오셨어요.  
 늘 저희들에게 “쌀독에서 인심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까지 한 곳에서 뿌리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따로 또 같이'

가족 중 누가 아픈 것만큼 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것은 환자 본인이겠지만 수발을 하는 가족의 구성원들도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든, 또는 저와 같이 시설에 모시든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뜻 뭐라 말할 수 없는 망설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심정은 우리 모두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관계의 거리', 다시 말해 내 자식, 내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밀착 관계여야 한다고 믿었기에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한 발짝 떨어져 함께 할 때는 더 많이, 더 즐겁게 애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나만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년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면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고 소란스러웠던 저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주고 하루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많이 웃고 행복하세요.



## 휴대폰으로 매주 만나는 노인인권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행복은 인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결국, 우리의 미래와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성문요양원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매주 '노인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에 담으며, 행동  
으로 실천합니다.

[출처-사회복지관레연구소 김호중 원장]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Web발신]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예전에는 어르신께 반말이 친근함의 표현  
으로  
인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이 11년이 되는 해 현  
재는  
어르신께 반말은  
정서적 학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 습관 그  
대로를  
고집한다면 도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소통은  
주로 말입니다.

친하니까 반말  
급하다고 고성  
배회하자 막말  
모두 정서적 학대입니다.

흥기가 되는  
반말  
고성  
막말은 내려두고  
가슴에 품고있는 친절로 소통해보시면  
더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Web발신]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입소첫날은 어르신에게  
설렘과 생소함이 교차합니다.

살던 곳이 아니고  
쓰던 물건이 아니고  
익숙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날밤 배회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스텝이 꼬이고  
방향감각도 잃어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결과는 낙상..

생활환경이 바뀌면  
이동 소크로 낙상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입소하신 어르신들  
꼼꼼히 관찰해야 할 이유입니다.

과거로 가려 하시는 어르신  
친절한 안내와 지켜봄을 강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Web발신]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오늘  
어르신을 섬기면서  
몇번 화가 났고  
몇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오늘  
어르신을 섬기면서  
몇번 감사해했고  
몇번 짝한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도 사람이기에  
사람에 따라  
마음이 오거니 가거니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종으로서  
한숨 쉬어가는 지혜가  
동료간에 전파되는줄 압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모이고 모여  
어르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기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Web발신]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어르신들의 균형감각  
믿지 마세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경우  
보통은 대퇴골 골절로 이어집니다.

어르신은 근력까지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이동을 보조할때  
특히 신경써야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이동속도에 맞추어  
보조활동을 하고 계신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균형감각  
어르신들의 근력을 믿으시면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이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점을  
다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Web발신]  
(성문요양원 인권문자)

등대는  
암초를 피하라고  
반짝 반짝 빛을 발산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등불입니다.

옛날 깜깜이 시절과 달리  
어르신 돌봄 전문가와 비전문 가족은  
비교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이 전문가 없는 가정에 방치되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의 새시대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이 시대전환의 역군입니다.

반딧불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을 발해  
지역사회 등대가 된 것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노인학대 제로에 꺼지지 않는  
등대불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 성문의 숨 쉬는 공간

성문요양원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시도록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개원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요양을 누리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당

필로티 지하 1층에 위치한 강당은 양쪽 벽면에 큰 창을 내어서 채광과 환기는 물론이고, 바깥 외출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주변 경치를 마음껏 보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어요. 짙짙한 음향기와 조명까지 더해져 더욱 즐거운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새로 지어진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강당과 마찬가지로 양쪽 벽면에 큰 창이 있어서 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전기치료와 찜질 받으시며 휴식을 취하시는데도 최고예요!





### 프로그램실

어르신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으로 프로그램실을 개설하였어요.  
최신 장비로 프로그램이 더욱 재밌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시스템 에어컨으로 냉·난방에도 신경을 썼답니다.

### 직원휴게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휴게실을 만들었어요.  
점심식사 후에는 식곤감이 더해져 비몽사몽한 정신을, 잠시나마 편한 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 요양원 외벽공사 후 전경

어르신들께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에 외벽공사를 진행하였어요.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를 사용하여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도 하니 마음까지 든든합니다.



### 신축시설 측면

끝으로, 밖에서 바라본 신축건물 측면부예요.  
몇 개월간의 공사를 끝내고 한층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시설 공간입니다.



##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원)

2020. 01. 01. ~ 06. 30.

세입			세출			
예산과목	정산액		예산과목	정산액		
세입총계		1,665,183,379	세출총계		1,418,250,786	
보조금	시군구보조금	19,608,050	사무비	인건비	1,008,950,790	
	시도보조금	-		업무추진비	2,913,940	
	소계	19,608,050		운영비	66,645,106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26,918,610		소계	1,078,509,386	
	지정후원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162,400,550
	소계	26,918,610			소계	162,400,550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	사업비	운영비	160,557,380	
	소계	-		사업비	5,204,590	
이월금	이월금	187,061,167		소계	165,761,970	
	이월식재료비	-	전출금	전출금	-	
	이월후원금	1,711,517		소계	-	
	이월보조금	63,148,242	잡지출	잡지출	11,578,430	
	소계	251,920,926		소계	11,578,43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	예비비	예비비	-	
	예금이자 수입	140,753		반환금	-	
	직원식재료	22,217,500		소계	-	
	기타잡수입	5,959,930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	
	소계	28,318,183		소계	-	
입소자 부담금수입	본인부담금	155,950,310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	
	식재료비	104,155,900		소계	-	
	소계	260,106,210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급여	1,078,311,400				
	소계	1,078,311,400				

## 2020. 후원금 결산내역 (단위:원)

2020. 01. 01. ~ 06. 30.

구분	수입	지출내용		잔액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2,579,277
비지정후원금	26,918,610	비지정후원금	24,339,333	
전년도이월후원금	1,711,517	전년도이월후원금	1,711,517	
법인전입금(후원금)	-	법인전입금(후원금)	-	
합계	28,630,127	합계	26,050,850	

## 2020. 하반기 주요일정

월	어르신 및 보호자 참여 일정	직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7월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식중독 예방 및 안전교육)
8월	·수급자 건강검진	·섭식연하 이해 교육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3차)
9월	·수급자 및 종사자 구충제 복용	·성폭력예방 대응교육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감염예방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종사자 윤리/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10월	·추석행사/한가위 배 놀이한마당 ·개원 10주년 및 노인의 날 행사 '천태은 빛축제' ·수급자 및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하반기 소방 및 승강기 안전교육
11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4차) ·기능회복훈련 및 간호교육
12월	·연말행사'우리는 한 가족'	·하반기 재난대응훈련

## 성문 서포터즈

### 후원 안내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업은행 128-082332-01-022

기업은행 128-082332-01-143

※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자원 봉사 안내

성문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동반자'를 찾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재능,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시실 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

활동내용 | 케어봉사(나들이, 말벗, 식사보조, 생활동 청소 등)

전문봉사(의료봉사, 레크리에이션, 심리상담,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신청방법 | 전화 (033)745-9179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나의 미래를 보고  
어르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